

박물관신문

연구와 전시

지역을 잇는 보물, 일상을 채우는 여정

| 2025년 <국보순회전>

조선 전기 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

| 특별전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

선과 면, 빛으로 재해석한 가야의 보석

| 특별전 <크리스탈(水晶) 가야(加耶) —

선과 면, 빛으로 재해석한 가야의 보석>

기억의 서랍

박물관을 잇다, 시대를 말하다

사람과 이야기

아시아미술의 중심, 그 강력한 존재감

책 속에 일렁이는 거대한 바다를 헤엄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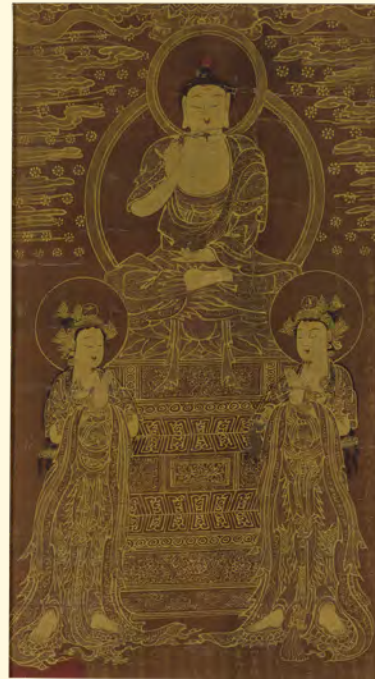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04

2025년 <국보순회전> 개최
전국 8개 국립박물관에서 180일간 진행



08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22

국립중앙박물관 홍보의 여정



28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관람객 인터뷰

연구와 전시

- 04 전시
지역을 잇는 보물, 일상을 채우는 여정
- 08 전시
조선 전기 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 10 전시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
- 13 전시
선과 면, 빛으로 재해석한 가야의 보석
- 16 교육
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구
- 18 교육
공감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

사람과 이야기

- 20 잠시 멈춤
여름이 오는 소리
- 22 기억의 서랍
박물관을 잇다, 시대를 말하다
- 26 K-뮤지엄
아시아미술의 중심, 그 강력한 존재감
- 28 인터뷰
각자의 마음속 바다를 향해 떠나다
- 32 출판
책 속에 일렁이는 거대한 바다를 헤엄치다
- 34 주요 소식
- 36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 38 박물관문화향연
- 3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5년 6월 1일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강경남 곽홍인 류정환 이민수 이진민 이태희
이현주 전인지 최성애 황은순 황지현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인쇄 (주)태광피앤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46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지역을 잇는 보물



분청사기 상감인화
연꽃 넝쿨무늬 병
조선 15세기
높이 31.8cm
보물
이홍근 기증

일상을 채우는 여정

백자 투각 모란무늬
항아리
조선 18세기
높이 26.5cm
보물



금귀걸이
신라 6세기
경주 보문동 합장분
길이 8.7cm
국보

2025년 <국보순회전>,
전국 8개 국립박물관에서
180일간 연이어 개최

산수풍경무늬 벽돌
백제 7세기
부여 외리
길이 28.2cm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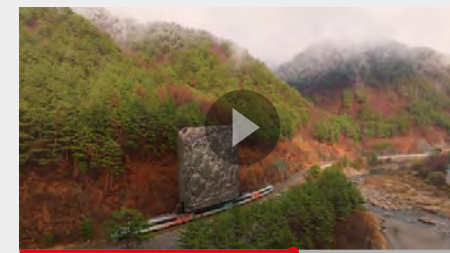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인데도 멀게 느껴졌는데, 이번 전시 덕분에 처음 와봤어요.”

2024년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린 <국보순회전> 현장에서 자주 들린 목소리다. 이 사업은 ‘국보·보물 같은 유물이 특정 박물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직접 찾아간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전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속으로 다가갔고, 그 결과 약 31만 명이 문화유산을 직접 마주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박물관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물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 학생들, 전시 관람 후 지역 상권으로 이어진 관람객의 발걸음이었다.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마주한 이 경험은, 전시가 고정된 공간을 벗어나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8개 국립박물관은 올해에도 다시 전국의 국립박물관과 손잡고, 더 깊이 있는 전시를 이어간다.

사계절을 따라 이어지는 180일간의 여정

2025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이하 <국보순회전>)은 전남 고흥에서 강원 삼척까지, 전국 8개 국립박물관을 순회하며 약 3,600km를 이동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광주·경주·부여·대구·전주·익산·진주·춘천 등 8개 국립박물관과 전국 8개 국립박물관이 함께 준비한 이번 순회전은 국보·보물 등의 문화유산이 지역을 찾아가는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관광객에게도 국립박물관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물관과 전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관람객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상반기에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봉화청량산박물관, 논산백제군사박물관,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전시가 개최되며, 하반기에는 정읍시립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함양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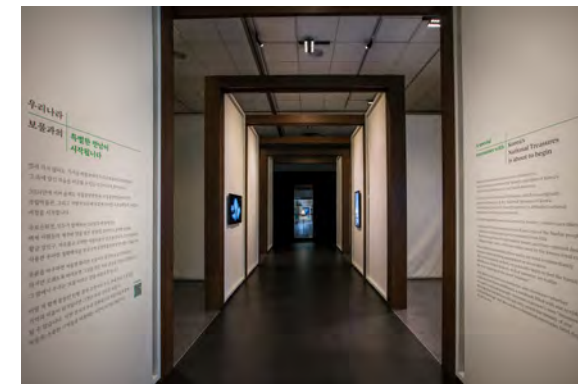


전국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전시 홍보 콘텐츠

보물이 배, 기차, 트럭, 헬기를 타고 고흥 다도해, 봉화 백두대간, 논산 탐정호, 의성 금성산 고분군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지나 박물관에 도착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관광지와 연계한 전시 홍보는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람객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대를 담은 네 개의 이야기

2025년 <국보순회전>은 ‘백제명품, 백제문양진’, ‘황금빛 매혹, 신라 장신구’,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 ‘푸른빛에 담긴 품위와 권위, 왕실 청화백자’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천천히 마주하며, 과거 사람들의 미감이 어떤 모습으로 남겨졌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을 건네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전시실 전경



백제인의 감각, 이상을 그린 문양

‘백제명품, 백제문양전’은 사비 시대에 제작된 장식 벽돌을 통해 백제인의 미의식과 이상을 보여준다. 산수와 연꽃, 봉황 같은 문양은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되어 백제 특유의 감각을 드러낸다. 특히 <산수풍경무늬 벽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풍경화로, 지금은 사라진 백제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신라의 정교한 금세공, 황금빛 장신구

‘황금빛 매혹, 신라 장신구’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몸을 꾸미는 데 사용했던 금 장신구를 소개한다. 신라의 황금 장신구는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서 섬세한 금속 공예 기술의 정수를 담고 있다. 때로는 장인의 손길과 실수가 함께 남아 있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조선 분청사기, 자유로움과 소박함의 미학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 백자의 전 단계로서 분청사기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조명한다. 상감, 인화, 철화, 귀얄 등 다양한 기법은 지역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꾸밈이 없으면서도 살아 있는 듯한 자유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고 이진희 회장이 기증한 작품을 포함한 이번 전시는 분청사기가 단순한 생활용기를 넘어 조선의 정신과 감각을 담아낸 그릇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왕실 청화백자, 절제된 기품과 권위의 상징

‘푸른빛에 담긴 품위와 권위, 왕실 청화백자’는 18~19세기 조선 왕실에서 사용된 청화백자를 통해 왕실의 미감과 격식을 보여준다. 모란, 사군자 등 상징적인 식물 문양은 부귀, 절개 등의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특히 청화로 만든 용준龍尊은 의례용 그릇으로도 사용되었다. 정교한 문양과 절제된 색감은 조선 왕실이 추구한 기품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유물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감’을 강조한다. 유물 수는 5점 내외로 많지 않지만, 각각에 시대의 배경과 예술적 정수가 오롯이 담겨 있다. 교과서에 실린 백제 산수무늬 벽돌, 신라 장신구, 조선 분청사기와 왕실 청화백자에 이르기까지. 이들 유물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매개로 새롭게 해석된다. 특히 K-컬처 콘텐츠와 연결되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신라 장신구와, 고 이진희 회장이 기증한 분청사기도 이번 전시에 포함되어, 문화유산이 동시대 대중문화와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막식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

전시실에서 마주한 유물의 이야기는 교육과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각 전시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유물의 시대적 맥락과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와 어린이박물관과는 각 전시 주제에 맞춘 학습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물 모형, 체험 교구, 디지털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 부스 ‘아하 배움터’를 운영해 관람객의 흥미와 몰입을 높이고 있다. 또한 8개 국립박물관과 전시에 참여하는 국립박물관들은 협업을 통해 교육 자료를 공동 개발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두근두근 산길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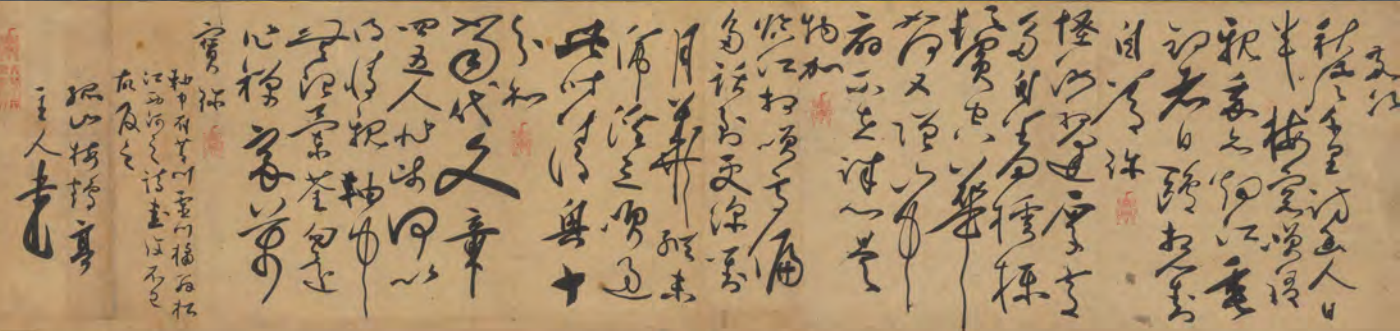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과 청량산박물관이 공동 개발한 교구재 ‘두근두근 산길모험’

백제 문양전을 주제로 한 이 보드게임은, 어린이들이 <국보순회전>과 청량산박물관 상설전시 유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캠핑객 등 주말 관람객도 별도 교육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시 종료 이후에도 청량산박물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는 공연, 강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한 공연이나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은 단지 전시를 ‘보는 일’을 넘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로 확장한다. 박물관은 이제 유물을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는 문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5년 <국보순회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박물관이 공공기관이자 지역의 문화 허브로 기능한다는 방향 속에서, 이번 전시는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키워드처럼 우리 사회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나누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진다.

이처럼 <국보순회전>은 박물관이 지역에 다가가는 방식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는 문화유산이 특정 도시에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 간 문화 접근성의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함께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황기로 초서-차운시
조선, 16세기
보물

조선 전기 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2025.6.10.~8.31.



분청사기상감인화문운룡문호
조선, 15세기
국보



백자반합
조선, 15세기
호림박물관 소장
보물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조선, 15세기
조계사 불안
보물



약사삼존도
조선, 1565년
보물



산수도 山水圖
구전(傳) 송(宋) 마우인(馬牛隱) (1074~1153)
조선 16세기 중반
비단에 먹과 색
일본 모리박물관 소장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
고려, 1390~1391년
보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개최한다.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아, 1392년 조선의 건국과 함께 시작된 새 미술을 조명한다. 이 시기에는 지난 시대에 쌓아 온 미술의 기반에 유교 국가의 새로운 이상과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전에도 본 적 없고 주변 여느 나라와도 같지 않은 조선만의 미술이 형성되었다. 새 이념의 이상향을 품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미술을 소개한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제1부 도자, 제2부 서화, 제3부 불교미술,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었다. 이 시대의 미술에는 많은 장르가 공존했지만, 가장 많은 작품이 남아 있고 오늘날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도자, 서화,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장르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각 부의 대표 색을 한 가지씩 선정했다. 하얀 도자 표면을 만들기 위한 기술 발전의 길로 나아가던 도자는 백색, 글과 그림으로 사대부의 이상과 내면세계를 표현한 서화는 먹색, 귀한 재료로 변함없는 종교적 바람을 표현한 불교미술은 금색으로 대표된다.

프롤로그 '조선의 새벽, 새로운 나라로'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발원하여 금강산에 봉안한 보물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을 만난다. 새 나라를 세우기 직전, 사리장엄에 담은 건국에 대한 열망과 다짐을 살펴본다.

제1부 '백^백, 조선의 꿈을 빛다'에서는 조선 전기 도자의 전개와 발전을 살펴본다.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되면서 푸른 청자의 시대가 가고 분청사기를 거쳐 새하얀 백자의 시대로 도약했다. 도자 생산 기술의 발전은 많은 사람과 물자를 동원하는 중앙집권의 힘으로 이끈 국가적 사업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새하얀 표면을 성취한 도자 제작 기술의 절정과 그 위에 펼쳐진 시대의 미의식을 소개한다.

제2부 '묵^묵, 인문^{인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에서는 조선 전기 사대부의 이상을 담은 서화를 소개한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사대부는 유교적 관념을 시^시·서^서·화^화로 표현하고 향유했다. 글과 그림에 사용된 먹은 무궁무진한 표현력을 가지고 이들의 이상과 내면을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먹색의 깊은 농담처럼 조선에 스며든 사대부의 이상과 가치를 소개한다.

제3부 '금^금, 변치 않는 기도를 담다'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닿아 있던 불교미술을 조명한다. 불교미술은 오래전부터 귀한 재료였던 금으로 장식되어 왔다. 유교의 시대가 되었지만 불교는 정치적 명분이 아니냐고 관계없이 왕실과 사대부, 신분이 낮은 사람들까지, 모든 조선 사람의 기원과 바람에 언제나 응답하는 신앙으로 존재했다. 긴 시간 잊히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자신을 장식한 금빛처럼 변하지 않는 기도를 담아 온 불교미술을 살펴본다. 에필로그 '조선의 빛, 훈민정음'에서는 국보 <훈민정음>을 소개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훈민정음은 조선 전기의 수많은 문화적 창안 중에서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연결되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훈민정음은 15세기 중반에 탄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문화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나아가 미래로 이어진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선 전기 미술이 어떤 의미인지를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되짚어보고자 한다.

조선 전기 미술은 시대의 산물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미감과 정서,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전시로 시대를 만든 미술의 힘, 그리고 그 시대가 남긴 미의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 김영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국립나주박물관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
2025.4.29.~7.27.

<나주 신촌리 금동관>이 처음 발견된 당시와 지금은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을까? 10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현재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국립나주박물관의 대표 전시품으로, 국가유산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많은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전시에서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한다.



영상실



전시실 전경

국립나주박물관은 2025년 기획특별전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을 4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금동관,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가치와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 및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국립나주박물관의 대표 문화유산으로서 지난 108년간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시실 중앙에는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과 금동신발, 장식 대도(大刀)들을 함께 전시하여 영산강 유역 권력자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과거 대관과 모관을 함께 전시했는데, 이번 특별전에서는 각각을 분리하여 그 특징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에 담긴 많은 내용은 정보영역에서 확인 가능한데,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정보의 시각화 방식을 통해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과학적 조사이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주 신촌리 금동관> 전면의 엑스레이(X-ray) 촬영에 성공했으며, 더욱 정밀한 연구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한, 정밀 3D 스캔을 활용하여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구성 요소들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1부에서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관련한 지난 108년간의 연구 과정을 축약하여 제시한다. 1917년 발굴에 참여했던 일본 연



〈나주 신촌리 금동관〉 3D 스캔 사진



금동관 X-ray 전면 사진



금동관 X-ray 뒷면 사진

구자들은 이것을 ‘왜인’의 것이라 해석했다. 그 배경에는 임나일본 부설을 증명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조선고적조사사업이 있었다. 과거 ‘왜인’의 것이라 인식되었던 금동관은 광복 이후 자료의 증가와 연구의 진전에 따라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정되었다. 특히 대관은 마한·백제 관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제2부에서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삼국시대의 여러 관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부각한다. 또한, 지역별로 출토되는 삼국시대 주요 관들의 출토 위치와 특징들을 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제3부에서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11개 관련 유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껍데기리들을 집대성한 학술 자료와 전시된 영암 내동리 출토 금동관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새로운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

제4부에서는 과학적 자료를 통해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바라본다. 새롭게 촬영한 엑스레이와 현미경 사진으로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안과 밖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리구슬 안쪽까지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수리하여 사용했는데, 그 흔적들을 보다 과학적인 영상과 시각자료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실 한쪽에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영상실이 구성되어 있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하나의 큰 구조물이라고 가정하고, 세부적인 요소들을 낱알이 살펴보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영상의 제목은 ‘시간을 넘어 마주한 영원한 빛’이며, 영상 마지막에서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고대 한반도에서 성장했던 영산강 유역 주요 정치체와 관련이 있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1997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금동관으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이우섭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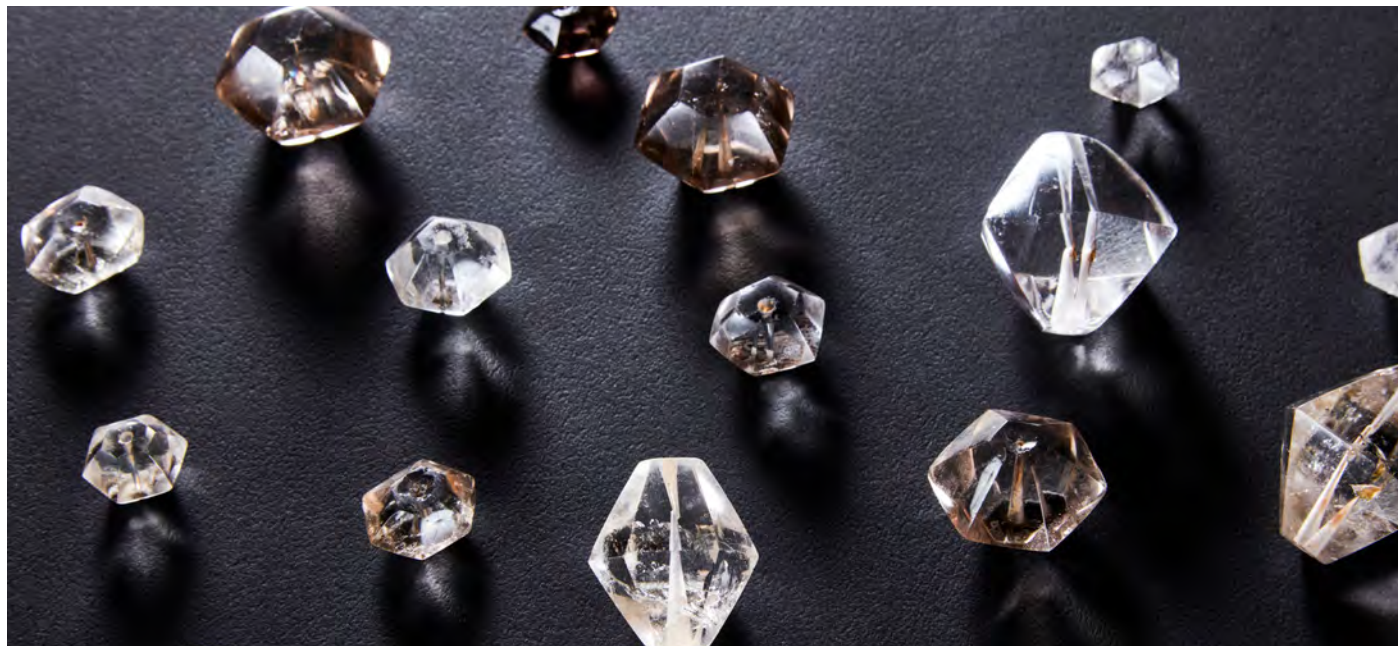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선과 면, 빛으로 재해석한 가야의 보석

국립김해박물관 특집전 〈크리스탈(水晶) 가야(加耶)-선과 면, 빛으로 재해석한 가야의 보석〉
2025.5.20.~7.31.



4부 금보다 고귀한

지구상에서 흔한 보석 중 하나인 크리스탈(水晶). 지금은 어디에 서나 볼 수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

중국의 옛 역사책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변한 사람들이 금, 은, 비단보다 구슬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출토품을 보면 금과 은보다 구슬로 만든 장신구가 많다. 지금은 귀히 여기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겐 크리스탈이 매우 귀하고 특별한 재료였다.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크리스탈(水晶) 가야(加耶)-선과면, 빛으로 재해석한 가야의 보석>에서는 이러한 크리스탈 장신구를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예 기술과 미적 감각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기존의 ‘철썩의 왕국’, ‘강인한 가야’와 같은 인상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가야’의 면모를 새롭게 제시한다.

꽃처럼 아름다운

작고 투명한 크리스탈 하나가 피어난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끝에, 크리스탈은 깊은 땅속에서 자란다. 오랜 옛날 서양에서는 맑은 크리스탈의 모습이 마치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과도 같다고 하여 매우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다. 수정을 뜻하는 (또 다른 용어인 ‘크리스탈Crystal’이라는 이름도) 게르만어인 ‘쿼츠Quartz’도 얼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루스탈로스Krustall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크리스탈은 이산화규소(SiO₂)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땅속 깊은 곳의 뜨거운 물에 녹아 있다가, 온도와 압력이 천천히 낮아지면서 굳어져 육각기둥 모양의 크리스탈 결정으로 자라난다. 이 과정에서 섞이는 불순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양한 색

을 갖게 된다. 백수정, 황수정, 자수정, 연수정 등 다채로운 색을 띠며 자라나는 수정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모습과도 같다.

우아하고 영롱한

한반도에서 크리스탈은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단단한 성질 덕분에 도구로 쓰였고, 철기시대에 이르면서 아름다운 장신구의 재료로 활용되었다.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은 다양한 색을 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백수정이다. 특히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출토되는 백수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투명도가 매우 탁월하다. 이는 크리스탈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거의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맑고 깨끗한 백수정은 변한과 가야 장인의 손끝에서 다양한 모양의 장신구로 다시 태어났다. 모서리가 각진 여러면옥(多面玉), 부드러운 곡선의 굽은옥(曲玉), 섬세하게 다듬어진 둥근옥(丸玉) 등 오랜 시간 원석을 갈고 닦아 가야인만의 미적 감각과 정교한 손길을 고스란히 담았다.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장신구로서의 크리스탈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이다. 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낙랑 무덤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원석을 들여와 한반도 내에서 만들었거나,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완성품을 들여온 것으로 추측된다. 주로 정다각형의 크리스탈옥이 많고, 크기가 작으며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서남부 지역은 어떨까? 서남부 지역의 크리스탈옥은 투명도가 낮고 회백색을 띠는 것이 많다. 주판알 모양의 크리스탈옥이 많고, 서북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온화한 인상

을 준다. 두 지역 모두 크리스탈만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는 많지 않으며, 형형색색의 유리구슬이나 다른 광물 재료와 함께 조화롭게 엮여진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 특히 변한과 가야의 경우 크리스탈만으로 만들거나 크리스탈을 많이 활용한 장신구가 두드러진다. 기원후 2세기경에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크리스탈옥은 3세기에 접어들며 더욱 활발하게 사용된다. 무덤의 꺼묻거리로 발견되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크리스탈옥의 크기도 매우 크다. 그렇다고 해서 변한과 가야가 다채로운 색상의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리, 마노, 호박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크리스탈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장신구를 만들어 냈다.

빛나도록 정교한

크리스탈은 매우 단단하지만 쉽게 깨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연한 돌이나 가죽, 철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숙련된 기술자가 정교한 손길로 다듬어야 했다. 산지에서 원석을 캐내는일부터 시작해서 쓰임새에 맞게 쪼개고, 거칠게 다듬으며 모양을 만든 뒤, 구멍을 뚫고 걸을 곱게 갈아내어 완성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다. 변한과 가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크리스탈옥 하나하나에는 단지 장인의 숙련된 기술만이 아닌, 아름다움을 빚어내고자 했던 장인들의 깊은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 그렇기에 크리스탈옥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며,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인내와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이 담긴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금보다 고귀한

변한과 가야 사람들에게 크리스탈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사회적 신분과 역할,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투명하고 빛 덕분에 신성하게 여겨졌고, 단단한 성질 때문에 숙련된 장인의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다. 그렇기에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3건의 가야 목걸이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김해 대성동과 양동리 무덤에서 출토된 3건의 크리스탈 목걸이는 당대 최고의 공예 기술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함께 어우러져 가야만의 조화롭고 세련된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화려함 속에서도 깨끗함과 신성함을 품은 가야의 크리스탈 목걸이는 금, 은보다 구슬을 귀하게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전한다.

오랜 시간 갈고 닦아 완성된 여러 모양의 크리스탈 장신구들은 변한과 가야의 뛰어난 장인정신, 정교한 기술, 섬세한 미적 감각 등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해준다. 맑고 투명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가야의 수정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빛나는 크리스탈을 따라 가야 문화가 지녔던 고유한 아름다움과 정신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글. 최은비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2부 우아하고 영롱한



목걸이
가야
경남 김해 대성동 104호 등
길이 88.0cm(중앙)
김해101622 등



목걸이
가야
경남 김해 양동리 270호 등
길이 68.0cm(중앙)
보물
김해74791 등

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구

국립박물관의 새로운 시도, 연구자와 대중이 소통하는 열린 강연회



국립박물관은 해마다 소장품 조사연구 성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도서를 발간한다. 이 책들의 내용은 탄탄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의미 있는 자료이긴 하나, 이러한 성과들이 전문가 이외의 많은 사람에게 널리 공유되기까지는 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아쉬움이 들 때가 있다.

박물관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한 끝에 조사연구를 수행한 박물관의 전·현직 학예직들이 강연 형식으로 직접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름하여 ‘박물관과 함께하

는 역사문화탐구’. 강연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국립박물관 수장고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소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서로 관련 있는 문화유산과 주제를 소통과 융합의 관점에서 연결 지어 편안하게 풀어내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다.

강연회의 첫 시작 ‘삼국시대 기와를 말하다’

그 첫 장을 ‘삼국시대 기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었다. 5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아 현장은 발표자와 청중 사이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먼저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환영 인사로 새

로운 강연 프로그램의 출발을 알리며, 박물관이 쌓은 연구 성과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취지를 전했다.

첫 발표는 김유식 전 국립제주박물관장이 맡았다. ‘신라 영묘사의 기능과 양지(良志) 추정 작품의 분석’을 주제로, 신라 시대 기와의 제작 양상과 장인 정신을 소개했다. 특히 승려이자 장인이었던 ‘양지’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영묘사 기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평생 기와를 연구한 전문가가 오랜 시간 축적한 지식과 통찰의 성과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신라 기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국립부여박물관 윤용희 학예연구사가 고구려 기와의 세계를 펼쳐 보였



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22년에 펴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 기와 -중국지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적별 기와의 종류와 수량, 문양과 제작 기법의 차이를 짚어보았다. 특히 고구려 기와는 국내 전지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유물이어서 청중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었다. 이에 고구려 기와를 전공한 국립중앙박물관 김진경 학예연구사가 지정토론을 맡아 출토 기와에 따른 무덤의 선후관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강연 내용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었다.

마지막 발표는 국립청주박물관 신민철 학예연구사가 진행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2023년 발간한 『부여 금강사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

까지 이어져온 금강사 터의 조사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소장된 기와를 정리하여 소개했다.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국립공주박물관 최경환 학예연구실장이 맡아 금강사지에서 백제, 통일신라, 고려 양식의 기와가 복합적으로 출토되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다.

모두를 위한,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강연

발표에 나선 연구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이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했다. 무미건조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고도 흥미롭게 이어진 발표는 청중의 몰입을 이끌어냈다.

강연을 들은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단순한 질문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더해 발표자와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고구려 기와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붉은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여러 질의응답은 전문 연구자와 일반 대중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장면은 박물관이 지식을 공유하는 진정한 ‘열린 공간’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는 새로운 주제

이번 강연회는 기와라는 하나의 장르를 매개로 삼국시대의 건축과 미학, 장인의 손길 등 시대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구’는 연구자와 대중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매년 정례화하여 계속 새로운 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서화로 시대를 읽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박물관 소장 서화작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새롭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전문가와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히 소통하는 열린 강연회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를 반추하며 오늘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글. 손미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공감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촉각 전시물 체험 공간 ‘모두를 위한 문화놀이터’ 조성

국립춘천박물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촉각 전시물 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본관 로비에 위치한 문화놀이터 안에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관람객 누구나 국립춘천박물관의 대표 불교 문화유산 2종을 기반으로 제작한 촉각 전시물들을 촉각·시각·청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약사불좌상-체험대 모습



금동보살입상-체험대 근접 모습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작년 보물로 새로 지정된 <금동보살입상> (양양 선림원 터 출토)과 고려 초 강원도 지역 철불 제작 양상을 알 수 있는 보물 <철조약사불좌상>(원주 학성동 출토)을 본떠 만든 촉각 전시물 8점을 ‘모두’와 함께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하고자 했다. 두 불상과 보살상의 크기를 축소하여 환조로 제작해 관람객이 손으로 만져보며 전체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조 촉각 체험물을 제공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불상과 보살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부조로 만들어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고 점자를 제공하여 관람객이 세부 표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체험물에 배치한 한글-점자 병기 설명문(설명 카드)의 원고 분량과 제시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 난제였다. 설명문을 작성할 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작성하고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과의 가족에게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 카드에 점자와 한글을 병기해야 하므로 분량 조절에도 신경 써야 했다. 전시품을 충분히 설명하려면 글이 많아지고, 설명 카드 크기에 맞추고자 글을 덜어내면 설명이 불친절해진다. 이러한 분량 압박을 해결하고자 한글 위에 점자를 겹쳐 새기는 방식을 택했다. 점자를 이용하지 않는 관람객에게 한글 설명문의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방식을 택했다.

또한, 각각의 환조 모형 앞에 음성 안내기를 설치해 청각으로도 전시품을 이해할



문화유산-철조약사불좌상(원주 학성동)



문화유산-금동보살입상(양양 선림원 터)



점자 찍기 체험 모습

수 있도록 했다. 체험대의 가장 왼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그 아래에는 음성 안내기와 함께 지팡이 거치대를 나란히 설치했다. 시각장애인이 이 거치대에 지팡이를 걸어 두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거치대 위치도 음성 안내기와의 거리를 고민하면서 정했다.

시각장애인은 박물관을 처음 방문할 때 매우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낮은 공간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이기 때문이다. 음성으로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들도 많기에 음성 안내는 필수 요소이다. 점자 이용자에게도 점자로 설명을 읽고, 음성으로 안내를 받는다면, 박물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촉각 체험물과 음성 안내기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감각이 발달하고 있는 어린이와 감각이 무뎈진 고령자들에게도 다감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도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다. 촉각 체험물이 설치된 공간에 전시품 수어 해설 영상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올해 초부터 비치되어 있어, 국립춘천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전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의미 있는 여러 시도

문화놀이터 출입구에 체험 시설을 안내하는 촉지도와 점자 설명문, 음성 안내기를 마련했다. 공간 체험 시설 배치 상황과 이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체험 내용을 미리 소개함으로써 관람객이 ‘마음 준비’를 마치고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화놀이터 출입구에서부터 촉각 전시물 체험대까지 인도하는 점자 블록을 바닥에 부착했는데, 이를 대각선으로 놓아 이용자가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인 ‘대각선 동선’은 공간 가장자리에 직각으로 점자 블록을 설치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점자 블록 배치 방식이 이용자의 보행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중도 설명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점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기도 준비했다. 촉각 전시물로 제작된 불상과 보살상이 인쇄된 엽서에 각 문화유산 이름을 점자로 적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감각으로 문화유산을 체험한 기념품이자 ‘점자’를 경험한 기념품으로, 점자의 중요성 및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감각 전시의 확대 필요성

전시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2)에서 상정하는 이용자 유형은 여섯 그룹이다. 장애인, 어린이, 영유아동반자(임산부 포함), 고령자, 외국인, 비장애인이다. 이 중 장애인 세부 유형은 휠체어 이용자, 보행 곤란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다. 그런데, 장애 유형별 고려 사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람객 모두의 다양한 요구가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장애인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박물관이 추진하는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업은 결국 ‘장애’라는 기준에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기준에서 보편적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불편 없이 박물관을 찾아오고, 즐기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는 사물과의 단절을, 청각장애는 사람과의 단절’을 시켰다고 회상했다. 누구도 사물과 사람에게서 단절되고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공감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에서는 촉각 전시물과 다감각 체험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글. 김순옥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여름이 오는 소리

먹구름으로 어두워진 하늘이 낮게 가라앉아 공기가 축축해집니다.
바람이 거세지더니 투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작은 크기의 여름 산수화 앞에 멈춰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을 두 폭씩 그린 <사시팔경도 四時八景圖> 화첩의 한 폭입니다.
산과 언덕 위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는 몰아치는 비바람에 이리저리 휘어져 춤을 추는 듯합니다.
샷갓에 도롱이를 입은 인물은 검은 소를 앞세우고 서둘러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앞, 개울은 물이 불어 빠르게 흘러갑니다.
화가는 여름철의 한순간을 포착해 자연의 질서와 순환, 그 속의 사람들을 탁월하게 담아냈습니다.

저기 언덕 위 정자에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고민이나 걱정은 내려놓고 여름 소리와 냄새, 촉감을 느끼며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차례 비가 내려 모든 것이 씻기고 나면, 공기는 한결 상쾌해지고 모든 것들이 한 뼘 성장할 테니까요.



<늦은 여름(만하)>
전해 안건 6쪽
15세기 중반
비단에 먹과 옅은 색
약수3144

20 ²⁰⁰⁵/₂₀₂₅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박물관을 잇다, 시대를 말하다

국립중앙박물관 홍보의 여정

2005년 용산 이전을 기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개관 이후 20년 동안 박물관은 관람객 2천만 명 시대를 지나며, 전시와 교육,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과 호흡해왔다.

박물관의 홍보는 단순한 알리를 넘어, 문화유산과 박물관의 활동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고, 그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며, 관람객과 박물관 사이의 '이해와 감동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박물관 각각의 점들을 선으로 잇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게 하는 이 '홍보의 일'은 곧 박물관이 사회와 만나는 방식이자 시대와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마케팅의 궤적을 되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본다.



참석자

도재기 전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이수경 국립춘천박물관장

이현주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전문경력관

기록을 넘어 기억으로, 용산의 시작을 알리다

이현주 처음에는 '용산'이라는 장소 자체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전 직후까지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도 공을 들였고,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도 부지런히 열었죠.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중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시키고 싶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보인 높은 관심이 있었겠지만, 개관 44일 만에 100만 관람객을 돌파한 것은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이후에도 500만, 1,000만, 2,000만 관람객을 차례로 넘어섰고요.

도재기 용산 이전을 두고 문화부 전문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퇴근 후 학예직분들에게 분야별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2000년대는 각 언론사의 문화부 기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 소식이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용산 이전에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형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어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박물관을 움직이는 구조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하고 싶었죠. 그러면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야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찾아, 체계와 중심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학예직과 교감하고 배우면서 '콘텐츠의 힘'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이현주 외부 홍보가 탄탄히 이어진 덕분에 20년 동안 꾸준히 관람객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기준으로만 보도되면 안타깝기도 하죠. 언론에

서 전시의 인기를 다룰 때 특별전 〈이집트 문명전-파라오와 미라(2009)〉(44만 8208명), 〈근대 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 오르세미술관展(2014)〉(37만 3831명),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2022)〉(32만 8951명) 등 국외 문화유산 특별전을 언급하는데, 국립박물관의 모든 전시를 관람객 수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박현택 관람객 수가 많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그것만으로 박물관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용산 이전 직후 '세계 몇 대 박물관', 'IT 박물관'으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조한 홍보가 있었는데, 자칫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죠. 박물관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런 시각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홍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2011년 특별전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는 환수 행사에서부터 특별전 개최까지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례입니다. 귀환 소식이 확정되자마자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도 운영했습니다. 전시가 열리자 아침부터 줄을 서는 관람객이 생기고, 지역에서 대형버스를 대절해 단체 관람을 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이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의궤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고 박병선 박사님(1923~2011)과의 만남입니다. 한국에서의 편한 여행을 마다하시고 "아직 할 일이 많다"며 프랑스로 돌아가셨죠. 이후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전시실에 마련한 빈소에 관람객들의 조문이 이어졌어요. 한 사람의 노력이 역사의 설움을 위로하고, 의궤들이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관람객과 마주하는 이 위대한 여정은 홍보인으로 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정 박병래 선생, 동원 이흥근 선생, 혜전 송성문 선생, 〈세한도〉를 기증해 주신 손세기·손창근 선생, 고 이근희 회장까지 많은 기증 이야기 역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장품만큼이나 그를 둘러싼 '사람의 이야기'가 관람객의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이수경 이처럼 한 점의 유물 뒤에 깃든 기증자의 뜻과 삶의 이야기는, 소장품의 가치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더 많

은 이에게 전하고 공유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죠. 한 점 한 점을 모아 소중히 간직해온 기증자의 송고한 마음은 오늘날까지 관람객과 학예연구직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 소장품의 유래를 넘어 그에 담긴 삶의 궤적과 철학이 이야기가 될 때 그 가치도 더 넓고 깊게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힘, 박물관과 사람을 연결하다

박현택 박물관 홍보의 시작은 아무래도 1970년 창간한 『박물관신문』이죠. 55년 세월만큼이나 에피소드도 참 많습니만 박물관 안팎의 목소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일구었습니다. 큰 변화라면 용산 이전 이후에 시작한 온라인 웹진 '뮤진MUZINE'이 지금 『박물관신문』 웹진으로 이어진 점과, 영문매거진 『National Museum of Korea』를 창간한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초기의 만듦새를 이어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박물관 홍보의 뿌리는 양질의 정보와 이야기라는 소신으로 꾸준히 지켜왔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소식지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박물관·미술관계의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도재기 기관이 커지면 그에 따라 '박물관을 알리는 방법'도 깊이를 더해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홍보 마케팅, 다시 말해 관람객을 위한 정책들이 다. 워낙 소장품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을 텐데요.

이현주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열린 자세로 관람객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계묘년 맞이 토끼를 찾아라〉2022.12.27.~2023.4.23.는 홍보 담당자와 학예직이 긴밀히 협력해서 전시로 이어진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좋은 기삿거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전시가 끝날 때까지 관련 보도가 꾸준히 나왔었어요.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의 자원을 어떻게 이야기로 이끌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도재기 홍보가 필요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구조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 내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관계망 안에서 유연한 태도로 박물관의 역할과 활동 환경도 넓혀가야죠. 그러면서도 박물관에 대한 외부의 인식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딱딱하고 무겁다’, ‘많이 알아야 갈 수 있는 곳이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면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죠. 보여주는 방식도 대상의 요구에 맞게 변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지 자체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위한 국립중앙박물관만의 방식을 고민해야하는 것처럼요.

이수경 말씀하신 맥락에서 덧붙이자면 요즘 ‘모두가 함께 하는 박물관’이라는 운영 기조의 실천 중 하나로 전시실의 모든 정보를 편히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예직 모두가 고민하고 많은 부분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관람객과의 소통도 홍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시품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또 개인의 방식으로 관계 맺어주는 것이 변화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 속에서 박물관 홍보가 지켜온 원칙과 실천

이현주 홍보 매체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박물관의 홍보 방식 역시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어, 직접 부딪히며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업해 시작한 가상현실(VR) 박물관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전시 기획과 운영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시도였고, 관람객에게는 더욱 확장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네이버TV를 통한 전시 해설 중계입니다. 처음엔 전시를 중계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지만, 이후 특별전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단순히 트렌드를 따랐다는 의미를 넘어서, 학예연구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용 중심’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에 특화된 홍보 수단을 접목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가 급격하게 변화한 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2011년, 145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을 만나는 <특별한 초대>에 출연한 (왼쪽부터)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가수 더 콰이엇, 이동우 학생



2020년 전 세계에 공개된 BTS의 유튜브브 ‘Dear Class of 2020’

유명 인사와 함께 박물관 소장품을 훑아보는 영상 콘텐츠 ‘특별한 초대’는 많은 입소문을 탔고, 학예연구직과 홍보대사가 함께한 ‘전시 투어’도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도재기 지금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간 기사 전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1인 미디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쇼츠 같은 새로운 형식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요.

홍보 환경이 빠르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말씀하신 ‘내용 중심’이라는 무게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자가 대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로 깊이를 더해 전달하는 방식은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환경에 맞춰 짧은 글을 빠르게 내보내는 시대에, 하나의 주제로 다층적인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한계는 물론 있지요. 그래서 전통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여전히 중요합니다. 박물관과 대중을 연결하는 접점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이현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알리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촬영 요청이 많았지만, 극히 일부만 수락한 이유는 공공 문화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는 방탄소년단(BTS)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배경으로 출연한 ‘Dear Class of 2020’입니다. 박물관의 위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아래 밤샘 촬영을 진행했었지요. 이 콘텐츠는 외국인 관람객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인 관람객 유치는 웅산 이전 직후부터 박물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Silla: Korea’s Golden Kingdom>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문화유산과 문화를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한 전시였는데,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Inside Korea’ 라는 주말판에 신라 금관이 표지로 실렸고, 그 신문이 뉴욕 5번가를 가득 메운 특별한 풍경도 연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늘 새로운 기회에 열려 있으면서도, 박물관의 품격과 정보를 지키기 위한 기준 역시 동시에 견지하고자 했죠.

이수경 그런 일련의 노력과 결과들이 쌓여 지금의 K-컬처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SNS와 온라인의 변화와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도재기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는 단순히 기관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국가 브랜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 방향을 국가 이미지와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그런 맥락에서, 특별한 계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BTS의 영상 콘텐츠 외에도, 2009년 배우 배용준이 떠난 도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설득해 박물관 방문을 유도했던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독자들 사이에서 박물관 방문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박물관을 찾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는 곧 박물관 브랜딩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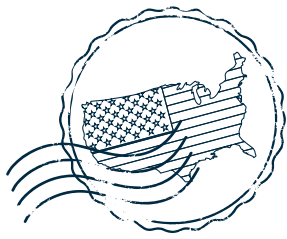
박현택 2000년대 들어 ‘홍보’의 중요성과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2010년대 이후로는 문화 산업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K-컬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홍보’와 ‘마케팅’ 사이의 언어적 간극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그 차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택하는 일입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브랜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영국의 영국 박물관 등 외국의 사례처럼 박물관은 유물 전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자 ‘경험’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전의 성과에만 기대기보다, 상설전시실과 소장품 관련 정보를 꾸준히 보완하고 관리함으로써 박물관의 고유한 정체성과 품격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리. 편집팀



(왼쪽부터) 박현택 연립뮤지엄 관장, 이현주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전문경력관, 이수경 국립춘천박물관장, 도재기 전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아시아미술의 중심, 그 강력한 존재감

미국 데이턴박물관의
한국 미술 작품 보존·전시·진흥
프로젝트



글. 피터 L. 더블러 Peter L. Doebl, PhD
미국 오하이오 데이턴박물관
케터링 아시아미술 큐레이터
Kettering Curator of Asian Art
Dayton Art Institute, Dayton, Ohio, USA

진행. 김슬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국제교류 전문경력관



2021년 개편한 미국 데이턴박물관 한국실의 모습

1919년에 설립된 미국 데이턴박물관 Dayton Art Institute(DAI)은 세계 예술사 5천 년에 걸쳐 전 분야를 아우르는 2만 8천여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프리카·아메리카·아시아·유럽·미국 등에서 제작한 중요 예술 작품을 수집·보존하며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데이턴박물관은 미국 내 중소 박물관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행사에는 매년 6만 5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데이턴박물관의 한국 미술품은 아시아미술 컬렉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도자 부문이 강점인데, 한국 미술사의 전 시기 주요 분야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후원자인 버지니아 W. 케터링 Virginia W. Kettering 씨의 기증이 데이턴박물관 한국 미술 소장품의 기반이 되었다.

데이턴박물관에서 아시아미술을 담당하는 나는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에 참여하게 되었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가 학술강연부터 국보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관람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미술사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세심하게 기획된 프로그램 중에는 이를 간의 콜로키움(학술발표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신선한 시각에서 데이턴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미술품, 특히 소장품의 출처 연구를 시작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또한 이 과정을 세계 곳곳에서 온 참가자 및 청중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뜻깊었다. 일정 중 답사를 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내내 함께 참가한 다양한 학예부서와도 관계를 쌓았다.

이처럼 값진 경험은 데이턴박물관 내 한국 미술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 펠로우십에서 알게 된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이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그 덕분에 우리 박물관은 2019년 한국 미술 전시실 개편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었다. 전시실 개편은 낡은 전열장 철거, 전시 공간 확장, 새로운 전열장 설치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전시실 벽면을 도색했고, 전열장 안을 도배했으며, 전시 조명도 개선했다. 시설 뿐 아니라, 전시 내용과 작품 설명도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했다. 이후, 데이턴박물관 한국실은 전보다 72%나 많은 총 43점의 소장품을 상시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전시는 도자기, 가구, 회화, 금속 공예품 등 다양한 전시품으로 구성되어 있



〈해학반도도〉 전시 모습

며 수장고에 있는 다른 작품과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된다. 데이턴박물관의 한국 미술에 걸맞은 방식으로 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펠로우십에서 인연을 맺게 된 국외 소재문화유산재단과 협업하여 기념비적인 병풍 〈해학반도도 Sea, Cranes and Peaches〉를 보존처리 하게 되었다. 이 병풍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고창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되었으며,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 거의 1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또한 이 병풍은 2022년 데이턴박물관 여름 특별전 〈영원을 위한 미술: 데이턴박물관의 보존 Art for the Ages: Conservation at DAI〉에 주요 작품으로 출품되었다.



2021년 개편한 미국 데이턴박물관 한국실의 모습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박물관에서는 재단 주최 국제 심포지엄, 미국 중서부미술사학회 연례 학술대회, 신시내티 아시아미술협회, 데이턴 엔지니어스 클럽, 데이턴 멘사 지부 지역 모임 등 다양한 대중 강연회에서 데이턴박물관의 한국 미술 소장품을 홍보하였다. 한국 소장품의 역사와 형성 과정 그리고 최근의 보존 작업까지, 데이턴박물관 측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간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기관이 협력하고 지원해 주었다. 덕분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예술작품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널리 알릴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 소개

미국 오하이오 데이턴에 위치한 데이턴박물관의 케터링 아시아미술 큐레이터이다. 버클리 신학연합대학원에서 예술학과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송고함은 지속가능한가? 숭고미에 대한 비교미학적 접근 Is the Sublime Sustainable? A Comparative Aesthetics Approach to the Sublime」(Brill, 2023) 및 미학, 영화, 예술, 종교를 아우르는 논문 백과사전 항목, 논평 등의 저자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박물관신문』의 'K-뮤지엄'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한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속 바다를 향해 떠나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관람객 인터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에서는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Mana Moana-Art of the Great Ocean, OCEANIA〉

(이하 <마나 모아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18세기부터 현대까지 오세아니아의 전통 예술품과 현대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어떤 시선과 감정으로 <마나 모아나>를 마주했을까? 신성한 바다를 향한 각자의 생각과 감상을 모아 전한다.

섬을 건넌 전시를 향해하다

윤하린

평소 국립중앙박물관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전에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진열장이 벽에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임시로 설치된 벽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는데, 개별 진열장마다 사물들이 담겨 있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시장 동선이 일직선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람객 각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프랑스의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 역시 의도적으로 동선을 정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구성했다고 하더군요. 개별 진열장이 마치 바다 위의 섬처럼 보이고, 관람객은 그 사이를 향해하듯 이동하도록 구성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연옥으로 만든 목걸이, '헤이 티키'Hei Tiki 펜던트'였습니다. 작품 뒤에는 흑백 사진 세 점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구성 덕분에 전시품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전시장 초입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 지도가 배치되어 있고, 다음 공간에서는 손으로 외워 그린 지도가 이어지는 데요. 시각적으로 완벽히 정리된 지도를 내려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전시에 철학적 개념을 담으려 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세아니아를 특정 틀로 규정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관점과 세계관을 전달하려 했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전시를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다문화'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키워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물관에서도 다문화적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작은 섬들의 문화를 전시를 통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영화 <모아나>를 본 세대라면 이번 전시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카누, 조각, 석상, 장신구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시품들이 많아 2030 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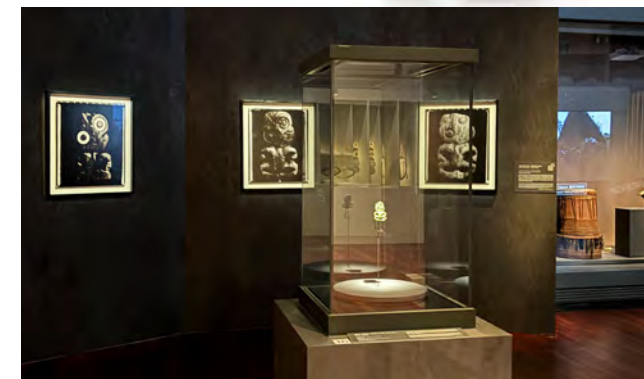
혈통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목걸이,
헤이 티키

Hei Tiki Pendant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
마오리족,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
연옥, 식물성 섬유
샤를 폴레이(1861-1956) 기증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



©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photo Claude Germain



바다로 이어진 시간과 기억, 진한 감동의 이야기

최민지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거의 빠짐없이 관람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신문』 2월호에서 소개된 기사를 보고부터 특히 기대하고 있던 전시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관람객이 많은 만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소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케브랑리-자크 시라크 박물관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한번도 가본 적 없는 오세아니아의 자연과 문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초입의 미디어 아트는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태평양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품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카누의 뱃머리에 장식된 조각상 ‘응구주응구주(Nguzunguzu)’ 앞에서 발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전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유물이었는데, 실물로 마주하니 조각의 정교함과 색감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신성한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세상과의 연결 통로로 삼았던 이들의 세계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바다 위를 함께 항해해보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각상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 프랑스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오세아니아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전시장의 동선 구성부터 영상, 분위기까지 전반적으로 새롭고 몰입감 있게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호기심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전시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누 뱃머리 조각상, 응구주응구주
Canoe Prow Figure, nguzunguzu
솔로몬 제도, 서부주, 뉴조지아섬
19세기
나무, 안료, 파리나리움 수지, 자개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



©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photo Claude Germain



정령 조각 앞에 멈춘 시선

김연우·이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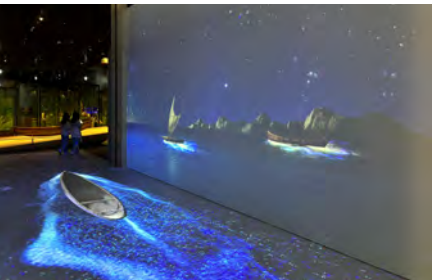
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마나 모아나〉특별전을 연다는 소식을 학교 게시판에 통해 접했고, 포스터의 색감이 눈길을 끌어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시장 공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조도에 음악이 잔잔히 흐르면서, 전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 전시된 카누의 뱃머리 조각, '도가이 Dogai'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카누 앞부분을 장식하는 여성 정령 조각인데,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해외에 가면 박물관을 꼭 찾는 편인데, 이번 전시는 해외 박물관에서 접했던 공간 구성 방식과 비슷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시 큐레이션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있기를 기대하는 편인데, 이 전시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해주었습니다. 하나의 신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주제별로 분명하게 나누어 구성한 점이 관람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전시를 보면서 원주민들이 신에 대해 지닌 아가페(Agape)적 에너지, 즉 무조건적 사랑과 숭고함의 태도가 과학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전시는 어렸을 때 보았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롭게 관람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바닥에 적혀 있던 큐레이터의 질문들도 인상 깊었는데, 전시품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사유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전시였습니다.

정리. 편집팀



영화에서 전시로 이어진 기억

채주연·곽수진·이정임

평소 아이들이 영화 〈모아나〉를 무척 좋아해 극장에서 보고, 집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 볼 정도인데요. 전시에서 영화 속 장면과 닮은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 입구는 디지털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도입부가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연출이 인상 깊었고, 영상이 끝나는 지점이 전시의 시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관람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아이들이라면 이 전시를 통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장에 등장하는 문신 문양이나 조각들도 영화에 등장하는 요소라서 낯설지 않게 느껴졌으니까요. 또 이번 전시에서는 '연결'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섬과 섬이 이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화와 전시가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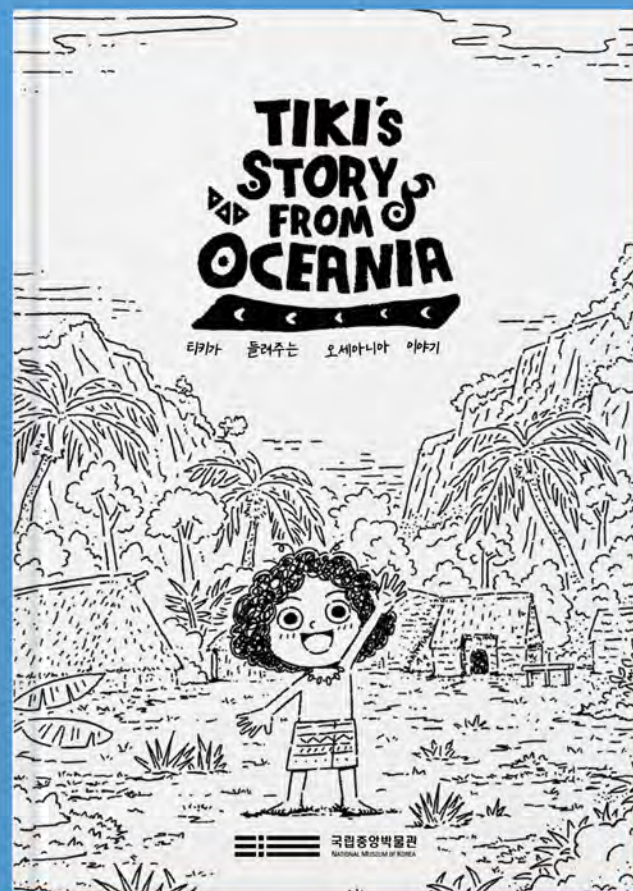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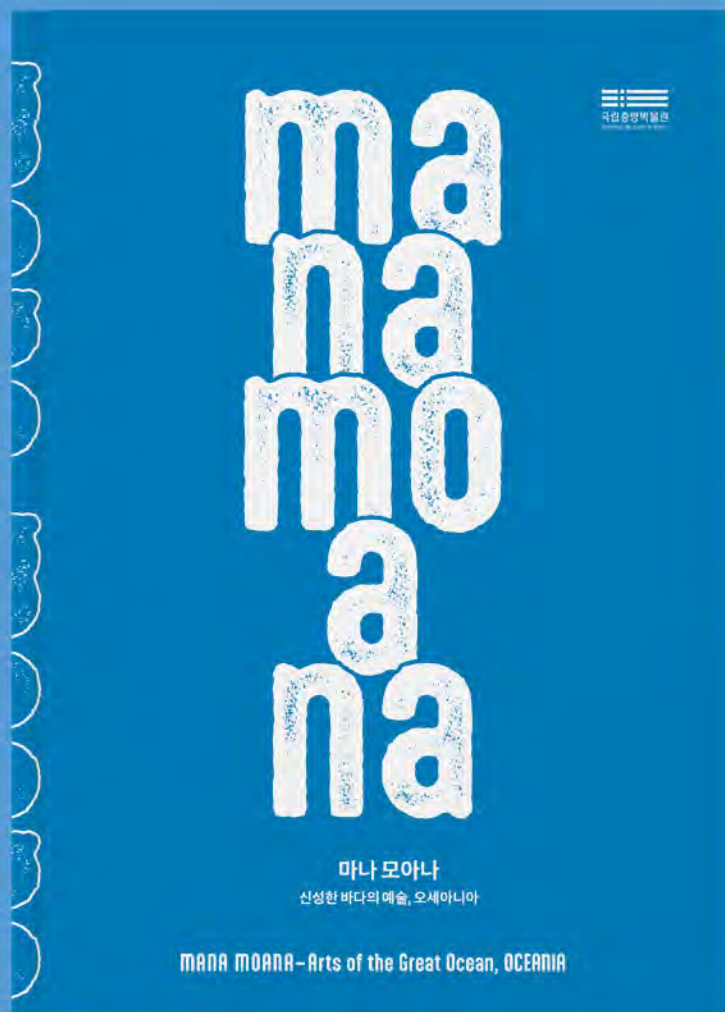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태평양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양지roman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전시는 그 이면에 있는 자연과의 관계, 삶의 방식 등 다양한 시선을 함께 제시해 주어 의미가 깊었습니다. 바다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연결'의 통로이자 삶의 무대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그런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른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로,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속에 일렁이는 거대한 바다를 헤엄치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전시 도록·그림책 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Mana Moana-Art of the Great Ocean, OCEANIA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색다르게 즐기게 해줄 전시 도록과 그림책을 발간했다. 전시 도록은 한국 관람객에게 맞춤형으로 특별 논고를 수록하는 등 재편집했고,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해 자연 친화적 제작과 다채로운 활용 방식을 채택했다. 두 권 모두 전시를 공동 기획한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만들었다. 두 박물관이 책으로 펴낸 특별한 오세아니아 이야기를 만나보자.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전시 도록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에서는 태평양 섬 문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오세아니아 전시가 열리고 있다. 9월 1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18세기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오세아니아의 예술과 철학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전시 도록은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의 소장품 설명을 기반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맞추어 원고를 재편집해 구성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담당 연구사, 연구관의 논고를 실어 전시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각 전시품의 입수 경로 및 출처 표기와 함께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의 오세아니아 소장품의 역사와 배경을 특별 논고로 실어 유물의 역사성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라는 전시 제목처럼 신성한 ‘마나’를 품고 거대한 바다 ‘모아나’를 향해하는 듯한 느낌의 바닷빛 표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섬과 섬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바다처럼 오세아니아 예술과 철학은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한다. 이국적인 경험의 시간을 넘어 인류가 함께 공감하는 새로운 통찰과 감동을 만나볼 기회이다.

글. 백승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티키가 들려주는 오세아니아 이야기」 그림책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낯선 오세아니아 대륙에 흥미를 가질까? 어린이들의 오세아니아 전시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이야기’로 엮자. 그중에서도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만들자.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특별전 그림책 「티키가 들려주는 오세아니아 이야기」이다.

그림책은 오세아니아 대륙에 사는 ‘티키’라는 아이가 대륙 이곳저곳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태평양 바다, 마이크로네시아, 뉴기니, 폴리네시아 등 다양한 지역 속 일곱 장면, 사람, 문화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풀어내었는데 이는 전시실에 있는 물건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의미를 가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책은 자연을 존중하며 자연과 함께 사는 오세아니아 사람과 문화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친환경 항균 보드로 제작하고 무색으로 편집함으로써 향후 자유롭게 색칠을 하며 자신만의 이야기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독자가 ‘내가 사는 대륙, 지역의 이야기’를 해보는 활동을 제안하여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공유해 보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게다가 이 책은 특별전의 공동 주최 기관인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 측에서 전체 콘셉트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감수를 받아 완성하였고 누구나 특정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국·영문을 병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책은 보는 것뿐 아니라 듣고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디오 가이드’로 제작하여 그 활용의 폭을 넓혔다. 아무쪼록 이 그림책이 전시 이해를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오디오 가이드

글. 박연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박물관 연구의 지평을 넓히다’ 제27회 동원학술대회 개최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소속박물관 직원 130여 명 참여



국립청주박물관은 사단법인 동원고고미술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국립청주박물관 강당에서 제27회 동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박물관 직원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첫째 날에는 ‘삼한시대 불평등의 경제적 기반-대동물의 가축화’(이양수 외, 국립청주박물관)를 시작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속 수레 연구’(윤종균, 국립익산박물관), ‘천마총 출토 백화수피제 채화판 연구’(장홍준·김종우, 국립진주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법화경으로 이룬 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감(덕수2115)에 대한 고찰’(김윤이,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의 불교미술사 연구 활용 방안과 자료적 가치’(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김기창·정중여 필 송하보월도(동원2996) 연구’(강민경, 국립제주박물관), ‘역사학의 학제적 협력 사례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특별전시 도록을 중심으로(2003-2024)’(정대영, 국립대구박물관), ‘고고관에서 선사고대관으로, 시도와 변용’(류정환, 국립중앙박물관) 등 8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박물관 교육의 설계 및 적용: 장애 통합교육 사례를 중심으로’(서진선, 국립제주박물관), ‘모두에게 균등하고 차별 없는 국립박물관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방안: 전라남도 섬 지역 학교 대상 교육사례를 중심으로’(전선영, 국립나주박물관), ‘박물관 특성화(서예문화) 주제로 한 누리과정 연계 교육과 전시’(고지훈,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수장고 개선 성과와 과제’(이윤섭, 국립제주박물관), ‘청년세대 대상 마케팅의 성과와 의미’(엄채현, 국립중앙박물관) 등 5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고학, 미술사학 등 순수 학문 분야는 물론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장 연구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박물관의 학술적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 갈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소장자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사와 현장성에 기반한 실체적인 경험의 축적이 어우러질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야말로 박물관 연구가 지닌 고유한 학문적 역량이자 강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참여형 시설안전 제안창구 개설 ‘박물관 시설안전, 이젠 관람객이 제안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 개관 20주년을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누구나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관람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누리집 (https://www.museum.go.kr)에 ‘시설안전 제안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5월 7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누리집을 통해 박물관 내·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상 불안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항도 ‘시설안전 제안창구(함께 만드는 안전한 박물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및 제안대상은 박물관 시설물 파손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제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시설안전 제안창구’는 박물관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시설안전 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담당자를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박물관 시설개선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제안의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누리집 ‘시설안전 제안창구’의 안전신고관리 메뉴(나의 활동)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AsIA인문자산강좌-이슬람을 만나다’ 개최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7회 진행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AsIA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7회에 걸쳐 ‘2025년 AsIA인문자산강좌-이슬람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AsIA인문자산강좌’는 아시아 인문자산에 대한 지식의 확산과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해 2021년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2021

년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 2022년 ‘칠ᄇᆞᆫ, 아시아를 칠하다’, 2023년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 2024년 ‘동남아시아의 미술과 문화’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루어지는 강좌이다.

이번 강좌는 이슬람 세계를 폭넓게 다룬 주제로 구성하여, 올해 11월 개관 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슬람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 AsIA인문자산강좌, 이슬람을 만나다’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nmuseum)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여중 고려인 학생 대상 전시 관람 프로그램 진행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와 협력

국립경주박물관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와 협력하여 경주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 관람 프로그램 ‘너, 나, 우리’를 운영하였다. 이는 경주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 문화 이해를 돕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며, 국립경주박물관이 처음으로 고려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품 설명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특히 고려인 학생들에게 동국대학교의 대학생 멘토가 1:1로 매칭되어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경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려인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국립제주박물관, 치매 가족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억의 서랍: 다시 이어지는 순간들’

국립제주박물관은 치매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억의 서랍: 다시 이어지는 순간들’을 운영한다. 6월 한 달간 제주시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하여 시범운영 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고령화 시대에 박물관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억을 잇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 내용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회상, 감각 자극, 예술 표현 활동을 결합하여 치매 가족의 기억을 환기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이 치유와 공감의 매개가 되어 삶의 기억을 다시 이어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립익산박물관, ‘제3기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



국립익산박물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9월 27일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제3기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는 국립익산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의 강의와 함께 박물관 관람, 미륵사지 탐험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학습 등을 마련하였다. 이에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전시 확대 이전

올해 12월 일반에 공개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 12일 상설전시실인 아시아도자문화실의 전시를 종료하고 올해 12월 도자문화관을 새롭게 일반에 공개한다. 2018년

시작한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는 핵심 목표에 따라 국내 최초로 도자기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브랜드 문화관을 건립한다. 도자문화관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에는 3개의 상설전시실(한국도자, 신안해저도자, 디지털 아트존)과 도자기 전문 수장고, 2층에는 카페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한국도자실에서는 도자기의 제작과 유통, 소비의 과정은 물론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통해 한국 도자기 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신안해저도자실에서는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원나라 무역선에 실려 있었던 2만 4천여 점의 다양한 도자기를 중심으로 14세기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디지털 아트존은 폭 60m의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 펼쳐진 도자기와 광주·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립박물관 인사동정(2025. 4. 16. ~2025. 5. 15.) | | | | | |
|--|-----------------------|----------------|-------------------------------------|---|------------------|
| 보임 | 2025-05-07 | 행정사무관 박수향 | 서지연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장 | → |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장 |
| | 2025-05-07 | 행정사무관 최혜정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관실 | → |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장 |
| | 2025-05-12 | 행정사무관 최혜정 | 국립중앙도서관 | → |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장 |
| 전입 | 2025-04-28 | 사서주사 이상은 | 국립중앙도서관 | →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
| | 2025-05-12 | 행정주사 김시영 | 국립현대미술관 | →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2025-05-12 | 시설주사 김시영 | 국립국악원 | →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전출 | 2025-05-12 | 공업주사보 김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2025-05-12 | 공업서기 박순호 | 국립국악원 | →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 | 2025-04-28 | 사서주사 서정연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 → | 국립중앙도서관 |
| 승진 임용 | 2025-04-30 | 행정서기 오지은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
| | 2025-05-12 | 행정주사보 김유철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 2025-05-12 | 시설주사 모상문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승진 임용 | 2025-05-12 | 공업주사 김주안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 | 국립민속박물관 |
| | 2025-05-14 | 행정주사 전유진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기획재정부 과건 |
| | 2025-05-12 | 행정주사 이소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 → |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실 |
| 수습 근무 | 2025-04-30 | 행정7급 채용후보자 기유나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 승진 임용 | 2025-04-30 | 행정주사보 서혜실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행정주사 |
| | 2025-04-30 | 공업주사보 송도석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 | 공업주사 |
| | 2025-04-30 | 시설서기 유아름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시설주사보 |
| 승진 임용 | 2025-04-30 | 행정서기보 김다운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행정서기 |
| | 2025-04-30 | 행정서기보 김진혁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행정서기 |
| | 2025-04-30 | 행정서기보 백지원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행정서기 |
| 승진 임용 | 2025-04-30 | 시설서기보 김배섭 |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 | → | 시설서기 |
| | 2025-04-30 | 공업서기보 김주안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 | 공업서기 |
| | 2025-04-30 | 방호서기보 강영보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방호서기 |
| 승진 임용 | 2025-04-30 | 방호서기보 이상일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방호서기 |
| | 2025-04-30 | 방호서기보 이창수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 | 방호서기 |
| | 2025-04-30 | 방호서기보 김현창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방호서기 |
| 승진 임용 | 2025-04-30 | 방호서기보 안용주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방호서기 |
| | 2025-04-30 | 방호서기보 김민섭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 → | 방호서기 |
| | 2025-04-30 | 방호서기보 유대기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방호서기 |
| 승진 임용 | 2025-04-30 | 방호서기보 오윤재 |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방호서기 |
| | 2025-04-21~2025-12-31 | 행정주사보 김상희 |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 | 휴직 |
| 휴직 | 2025-05-01~2025-09-30 | 운전서기보 김세윤 |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 | 휴직연장 |
| | 2025-05-11~2025-09-10 | 학예연구사 임혜경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 | 휴직 |

특별전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 | 6 JUNE | 7 JULY | 8 AUGUST | 9 SEPTEMBER | 10 OCTOBER |
|----|---|--------|----------|-------------|------------|
| 중앙 | + - ÷ ×(알기 달기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 2024.11.19.~ | | | | |
| |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 | | | |
| |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 | | | | |
| |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2025.4.30.~9.14. | | | | |
| |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2025.6.10.~8.31. | | | | |
| 경주 | 〈반짝반짝 신라, 두근두근 경주〉 2018.1.26.~ | | | | |
| |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5.5.3.~8.24. | | | | |
| 광주 |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 2024.1.2.~ | | | | |
| | 〈역사문화 1, 2〉 | | | | |
| 전주 | 〈참방참방 기획〉 2024.12.5.~ | | | | |
| | 서예문화실 재개관 2025.6.27.~ | | | | |
| 대구 | 고 이견희 회장 기증 석조물 2024.12.6.~ | | | | |
| | 고 이견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 | | | | |
| 부여 | 〈만세불후 佛後不朽 ~ 돌에 새긴 영원〉 2025.6.17.~8.31. | | | | |
| | 〈Hello 향로! 백제금동대향로의 초대〉 2025.1.2.~ | | | | |
| 공주 | 〈산화코발트, 기증품에 스며든 푸른빛〉 2025.4.8.~2026.6.28. | | | | |
| | 〈왕과 왕비의 보물을 찾아라〉 2025.1.2.~8.10. | | | | |
| 진주 | 국가귀족유산 미리보기 <우리지역 문화유산 재발견>, <이목집중 문화유산〉 2024.11.23.~2025.6.30. | | | | |
| | 〈옥의 석조문화유산 정원~수호의 정원〉 2024.9.10.~ | | | | |
| 청주 | 국가유산 속 금속 이야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영유아체험실) 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 | | | |
| | 〈거울, 시대를 비추다〉 2025.3.21.~7.20. | | | | |
| 김해 | 〈후지산에 오르다, 야마나시(山梨)〉 2025.9.4.~12.28. | | | | |
| | 〈크리스탈(水晶) 가야(加耶)〉 2025.5.19.~7.31. | | | | |
| 제주 | 〈세계유산 2주년, 다시 보는 대성동고분군(가제)〉 2025.9.22.~2026.2.22. | | | | |
| | 〈안녕, 제주!〉 2021.11.26.~ | | | | |
| 춘천 |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2024.8.13.~ | | | | |
| | 〈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 | | | | |
| 나주 |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 | | | | |
| |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 2025.4.29.~7.27. | | | | |
| 익산 | 〈구석구석 미륵사지 탐험대〉 | | | | |
| | 〈미륵사지 중국도자〉 2025.6.3.~8.31. | | | | |

| 교육프로그램(제목) | 일시 | 장소 |
|--|--|-------------------|
| 〈공간 오감〉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 6.5.(목)~6.28.(토)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 | 공간 오감 |
|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 6.2.(월)~6.30.(월) 매주 월·수 10:00~10:40 / 11:00~11:40 | 온라인 |
| [유아 단체] 손으로 만나는 옛날 물건 | 6.10.(화), 6.17.(화), 6.24.(화) 10:20~11:10 | 어린이박물관 속속배움터 |
| 특별전 <마나 모아나> 가족 어린이를 위한 오디오가이드, 그림책, 패널 | 6월 중 상시 | 특별전시실 2 |
| 뮤지엄 아카데미(분야별 과정)-보존과학 연수(유기물) | 6.4.(수) 9:20~17:00 | 교육관 제2강의실 |
| 제4기 뮤지엄 아카데미 특화과정-기초·심화·기획 | 6.10.(화)~6.25.(수) 기간 중 주 4일, 3일 | 교육관 제2강의실·실습교육실 |
| 뮤지엄 아카데미 일반과정(예비 전문인력 대상) | 6.26.(목)~6.27.(금) | 교육관 제2강의실 |
| 문화어울림(병원학교) 교육·박물관 문화탐험대 | 6.11.(수) 13:30~14:30 6.18.(수), 6.25.(수) 14:00~15:00 | 어린이병원학교 |
|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연계 쉬운 패널, 오디오가이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액티비티북 | 6.10.(화)부터 상시 | 특별전시실 1 |
|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 6.14.(토)~6.28.(토) 매주 토 10:00~12:00 | 수목당 |
| 박물관 백세 청춘 마당 | 6.12.(목), 6.26.(목) 14:00~16:00 | 수목당 |
| 6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 6.25.(수) 17:00~17:30 | 특별전시관 |
| 신라의 꿈, 미래를 열다 | 6.16.(월)~12.19.(금) | 수목당, 신라미술관 |
| 손끝으로 느끼는 흙의 이야기 / 그림 책! 설명 북! | 5.3.(토)~8.24.(일) | 특별전시관 |
| 무럭무럭! 문화유산 더하기+ | 상시 | 어린이박물관 |
| 속속! 꼬마 도공 탐험 | 6.4.(수)~6.25.(수) 매주 수 | 어린이박물관 |
| 박물관은 내 친구 | 6월 중 | 상설전시실 및 체험학습실 |
| 제19기 광주어린이박물관학교 | 6.14.(토), 6.28.(토) | 체험학습실 |
|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고려청자 몽타주 | 6.10.(화), 6.17.(화), 6.24.(화) | 체험학습실 |
| 아시아, 도자에 꿈을 담다 | 6월 중 | 체험학습실 |
| 삼자가 열리면 | 상시 | 어린이박물관 |
| 우리 마을 보물찾기 | 6월 매주 토 | 상설전시실 |
| 문방사우를 찾아라! | 6.4.(수), 6.11.(수), 6.18.(수) | 어린이박물관&교육실 |
| 아깨동무 | 6.5.(목), 6.12.(목) | 어린이박물관&교육실 |
| 박물관 인문학 | 6.25.(수) | 강당 |
| [유아 단체] 개구쟁이들의 박물관 여행 | 6.5.(목)~6.26.(목) 매주 화·목 10:30~11:30 | 꿈마루 |
| [초등 단체] 교과서 속 문화유산 | 6.4.(수)~6.27.(금) 매주 수·금 10:00~11:30 | 문화사랑방·강당 |
| [관람객] 문화유산 그림단추 | 6.7.(토)~6.28.(토) 매주 토 14:00~16:00 | 해설관 로비 |
| 자원봉사자 교육 | 6.18.(수) 14:00~16:00 | 문화사랑방 |
| 온(ON) 가족 신선놀이 | 6.27.(금)~6.30.(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 온라인 |
| 보고·듣고·느끼는 호기심 박물관 | 6월 중 화~금 예약제 | 세미나실 등 |
| 향로 속 친구와 인사해요! | 6월 중 화~금 예약제 | 어린이박물관 |
| 유 퀴즈? 관찰하GO 생각하GO | 1.2.(목)~12.31.(수) | 상설전시실 |
| 모두 같이 즐겨요 | 4.4.(금)~11.28.(수) | 세미나실, 전시실 |
| 제7기 공주박물관대학 인문학강좌 | 6.4.(수), 6.11.(수) | 현장답사 |
| 2025 지역문화유산찾기 <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유산> | 4.1.(화)~11.30.(일) | 유적지 현장 및 공립박물관 |
| 우리학교에 찾아온 무령왕 | 6.25.(수) | 홍성 홍주초등학교 |
| 제21기 상반기 박물관대학 <진주, 천년을 이어오다> | 6월 매주 목 14:00~16:00 | 강당 |
| 제14기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내 미래 직업은 박물관 '큐레이터'> | 6.14.(토), 6.28.(토) 9:30~12:00 | 교육실 |
|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 6월 매주 수·금 10:00~11:30 | 어린이 입선왜란 체험실, 전시실 |
|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 | 6월 매주 화~금 10:00~12:00 | 교육실, 전시실 |
| 제23기 박물관 연구과정 | 6.19.(목) 14:00~16:00 | 소강당 |
| 제17기 어린이 토요박물관학교 | 6.21.(토) 14:00~16:00 | 세미나실 |
| 큐레이터와의 대화 | 6.25.(수) 16:30~17:00 | 상설전시실 |
| 가야건국설화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 인형극 | 6.13.(금), 6.19.(목), 6.20.(금), 6.26.(목) 10:30~11:30 | 어린이박물관 인형극장 |
| 특별전 연계 <크리스탈 가야> | 6.14.(토), 6.28.(토) 10:00~11:00 |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
| <안녕, 가야! 해상왕국편> | 6.10.(화), 6.24.(화) 10:00~11:30 | 어린이박물관 영상체험실 |
|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 6.25.(수) 14:00~16:00 | 강당 |
| 국립제주박물관 탐구생활 | 6월 중 수~금 | 교육실 |
| 오명가명 박물관 | 6월 중 화~금 | 교육실 |
| 보급형 교육상자 대여 | 6월 중 상시 | 각급 학교 |
| [관람객] 체험공간 <문화놀이터> | 상시 | 문화놀이터 |
|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산책 <춘박 명품 토틀보기> | 6.25.(수) | 상설전시실 |
| 김해 | 6.3.(화), 6.4.(수), 6.10.(화), 6.11.(수), 6.13.(금), 6.17.(화), 6.18.(수), 6.20.(금), 6.24.(화), 6.25.(수), 6.27.(금) | 전시실, 숲속배움터 |
| 인문예술 힐링 강좌 <인류와 음악> | 6.5.(목)~6.26.(목) 매주 목 | 본관 강당 |
| [어린이 동반 가족] <토요일의 박물관> | 6.14.(토), 6.28.(토) | 문화놀이터 |
| [유아]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 | 6월 매주 수 10:00~11:20 | 체험학습실, 전시실 |
| [초등/청소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 6월 매주 화·목·금 10:00~11:30 | 체험학습실, 전시실 |
| [소외계층] 함께 가요, 박물관 나들이 | 6월 매주 화~금 13:30~15:00 | 체험학습실, 전시실 |
|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 6월 매주 토 10:30 / 14:00 / 16:00 | 어린이박물관 |
| [가족] 종이풍선에 담긴 문화유산 | 6월 매주 일 10:30 / 14:00 / 16:00 | 어린이박물관 |
| 섬 지역 학교와 함께 하는 박물관 역사여행 | 6월 매주 월~금 자율 | 전남 섬 지역 학교 |
| 구석구석 미륵사지 탐험대 | 6.7.(토)~6.28.(토) 매주 토 | 어린이박물관 |
| 익산 | 6.1.(일)~6.29.(일) 매주 토·일·공휴일 | 상설전시실 |
|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 6.14.(토), 6.28.(토) 9:30~11:30 | 어린이박물관 |

초여름 햇살 아래, 다시 피어나는 문화의 숨결

푸르름이 짙어지는 6월, 전국 곳곳의 국립박물관에서는 계절의 온기와 함께 전통의 숨결이 다시 피어난다. 햇살 가득한 야외 공간을 물들이는 소리와 몸짓,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계절의 결을 따라 펼쳐지는 박물관문화향연은 일상에 잠시 머무는 예술의 순간을 선사하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갬블러크루

일시: 2025.6.7.(토) 17:00 |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야외무대

갬블러크루 Gambler Crew는 2001년 창단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보이 크루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브레이킹 팀이다. 독창적인 루틴과 고난이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로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한국 비보이 문화의 위상을 높여왔다. 브레이킹 배틀 뿐만 아니라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비보잉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

국립무용단

일시: 2025.6.14.(토) 15:00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1962년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모토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그것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KBS국악관현악단

일시: 2025.6.21.(토) 15:00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KBS국악관현악단은 1985년 11월 20일 창단연주회를 개최한 이후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오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23년부터 레퍼토리 시즌제를 도입하여 정기연주회와 시청자 감사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획연주회, 지역연주회, 방송연주회 등 연간 60여 회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

일시: 2025.6.28.(토) 15:00 | 장소: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1963년에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춤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통해 현대예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무용단은 2024년부터 매년 청년 교육단원 20여 명을 선발하여 국립무용단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교육을 통해 청년 교육단원들의 '전통에 대한 당찬 도전'을 견인하며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5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25회 | | 18:00~18:30 | 19:00~19:30 |
|--|---|--|------------------------------------|
| 조각·공예관 | 특별전시실 2 | 중·근세관 | 선사·고대관 |
| CT로 본 청자의 제작기법 청자실(303호) 보존과학부 양석진 |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4) 특별전시실 2 전시과 백승미 | 근대교육의 시작, 대한제국 대한제국실(120호) 교육과 손미은 | 가야의 상형토기 가야실(107호) 유물관리부 이지원 |

| 826회 | | 18:00~18:30 | 19:00~19:30 |
|----------------------------------|---|---|--|
| 서화관 | 특별전시실 2 | 특별전시실 1 | 특별전시실 2 |
| 조선의 소반 목칠공예실(204호) 미술부 황지현 |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5) 특별전시실 2 전시과 백승미 |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1) 특별전시실 1 미술부 김영희 | 특별전 연계-티키가 들려주는 오세아니아 이야기(1) 특별전시실 2 어린이박물관과 박연희 |

| 827회 | | 18:00~18:30 | 19:00~19:30 |
|------------------------------------|---|---|--|
| 선사·고대관 | 특별전시실 2 | 특별전시실 1 | 세계문화관 |
| 고구려의 무덤 고구려실(105호) 고고역사부 김태영 |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6) 특별전시실 2 전시과 백승미 |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2) 특별전시실 1 미술부 임진아 | 특별전 <일본미술, 네 가지 시선>(1) 상설전시관(306호) 세계문화부 최종은 |

| 828회 | | 18:00~18:30 | 19:00~19:30 |
|----------------------------------|---------------------------------------|---|--|
| 선사·고대관 | 서화관 | 특별전시실 1 | 교육관 |
| 신라의 유리 신라실(108호) 보존과학부 이승은 | 불화를 읽는 시간 불교화화실(203호) 유물관리부 윤예지 |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3) 특별전시실 1 미술부 김영희 | 장애, 비장에 통합 전시체험교육 <공간 오감> 교육관 교육과 손미은 |



webzine.museum.go.kr

표지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에서는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Mana Moana-Art of the Great Ocean, OCEANIA}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그간 한국에서 접하기 쉽지 않았던 태평양 섬 문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어떤 시선과 감정으로 전시를 마주할까요?
제목처럼 신성한 ‘마나’를 품고 거대한 바다 ‘모아나’를 향해하며 각자의 감상을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